

# 자유를 주시는 성령님

성경말씀: 고후3:1-18

1950년 6월 25일, 6.25 남침, 낙동강까지 밀림. 맥아더 장군이 9월 15일에 월미도에 상륙하고 UN 연합군이 9월 28일에 서울을 수복함. 1957년에 인천 상륙 작전을 기념하기 위해 당시 UN군 사령관이었던 맥아더의 동상을 자유 공원 동편에 건립했다. 이렇게 해서 자유를 얻게 되었다.

자유: Liberty, 묶인 데서 해방시킨다는 의미, 성경에 총 18번 나온다.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 눅4:18, 19, 자유를 주시는 사역

유대인: 아브라함의 씨로 구약의 상속 유업에 참여함, 시간이 지나면서 착각에 빠지기 시작했다.

율법을 통해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하는데 율법의 글자를 지키는 데 주력하였다.

600개가 넘는 율법을 만들어 종교성을 과시하였다.

즉 율법의 종, 글자의 종이 되고 말았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에게 자유를 주러 오셨다.

이방인: 미신의 종이 있었다. 신이 아닌 것을 신으로 섬겼다.

예수님은 이들에게도 자유를 주러 오셨다. 예수님의 영이 있는 곳에서는 언제나 자유가 있다.

## 배경

진짜가 있으면 가짜가 있게 마련이다. 물진이 유명할수록 짝퉁이 많다.

은혜의 복음이 이방인들 가운데 선포되자 다른 복음, 짝퉁 복음이 등장했다.

유대의 율법주의자들의 등장, 은혜와 율법을 혼합한 복음, 갈라디아 교회들

이들의 주장: 구원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 받는다(행15).

혹은 구원은 은혜로 받으나 그것을 지키려면 율법이 필요하다. 혹은 율법을 통해 완전하게 된다.

율법주의 복음: 인간 내부의 자아를 부추긴다. 뿌듯한 감을 준다.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님께서 일하도록 두지 않고 법과 규율을 만들어 사람이 일을 하게 한다.

신천지, 베레아, 여호와의 증인, 오순절주의, 이단 교회들의 특징

## 구약과 신약의 차이

### (1) 둘 판인가, 마음 판인가?(1-3)

고린도 후서의 배경: 사도 바울의 인간적인 연약하므 뜨거운 사랑, 아타까움이 드러남.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추천서를 자랑하기 시작했다(3:1). 예루살렘의 누구누구에게서 받은 편지

바울은 그런 것이 없었다. 자기의 가치를 사람의 판단에 두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다. ★★★

하나님의 율법, 십계명, 둘 판에 쓰셨다. 이것은 밖으로 드러난 것이며 사람을 바꾸지 못한다.

우리는 믿음으로 견고 보는 것으로 견지 않는다(고후5:7).

사람의 삶은 오직 내적 능력으로 말미암아 바뀐다.

“해라”, “하지 말라”로는 사람을 못 바꾼다. 순종할 힘이 없다.

순종해도 마음의 순종이 아니다. 그래서 결과는 더 나쁘다.

은혜의 사역은 사람의 마음을 바꾼다.

하나님의 영은 사람의 마음 판에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한다. 슄4:6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사악한 죄인들이었다(고전6:9-11). 그런데 그들에게 변화가 생겼다.

이런 변화가 사람의 추천서보다 더 낫다. 이것이 바로 살아 있는 추천서이다. 우리는 어떤가? ★★★

### (2) 죽음인가? 생명인가?(4-6)

유대의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행하면서 일을 많이 하면 영적인 사람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래서 요즘 교회에서도 일을 많이 시킨다. 일, 일, 일, 교회에서는 최소한의 일을 한다.

하나님의 일들(요6:28-29), 하나님의 아들을 알고 믿는 것이다. ★★★

복음주의자들은 “나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습니다.”에서 출발해서 끝을 낸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의 내가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한다(고전15:10).

율법 자구(letter), 영(spirit)의 대조

글자와 법은 죽이나 영은 살린다, 생명을 준다. 성경도 마찬가지.

율법은 나쁜 것이 아니다. 율법은 사람을 죽인다. 도저히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보여 준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 항상 죄를 지적하고 무언가를 지키라고 하면서 인간의 연약함만 보여 주는 목사나 교회는 사람을 어둠의 속박 속에 넣는 것이다. ★★★

사람이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통해서 단번에 영원토록 하신다(롬8:3). 이것이 신약의 복음이다. 사람을 살린다.

### (3) 사라지는 영광인가? 점점 더 커지는 영광인가?(7-11)

출34:29-35, 구약에도 영광이 있지만 신약의 영광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모세의 얼굴이 빛났다. 그러나 그것은 없어질 영광이다(7).

정죄하는 직무의 영광이다(8). 글자의 영광이다.

그러므로 신약의 영의 직무는 훨씬 더 빛나고 영광스럽다.

사람의 삶을 변화시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는 직무이다. 하나님의 본성에 이르게 하는 직무이다. 의에 이르게 하는 직무이다.

율법에 의해 의가 온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다(갈2:21).

율법으로 해 보려고 하는 사람은 날이 갈수록 더 죄 때문에 고생한다.

구약의 영광은 사실 신약에 비하면 사실상 없는 것이다(10). ★★★

### (4) 숨기는 것인가? 드러내는 것인가?(12-13)

모세에게는 숨길 것이 있었다. 영광이 사라지기 때문에(13)

그러나 바울이나 우리에게는 그런 것이 없다. 그래서 담대하다. 분명하게 말을 한다(12).

복음은 단순하며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말한다. “죽어 봐야 안다”고 하지 않는다.

천국과 지옥, 기독교와 타종교, 복음과 종교, 숨길 것이 없다. ★★★

### 자유하게 하는 성령님(14-17)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생기는 이유: 그들에게는 아직도 모세의 얼굴에 있던 베일이 남아 있다(14).

그 베일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사라졌다.

그런데도 여전히 그 베일로 마음을 가리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의 마음이 주님께로 돌아서면 그 베일이 벗겨진다.

그 이유는 주님의 영이 있는 곳에는 사람을 해방시키는 자유가 있기 때문이다. 인천상륙작전 무지, 속박, 죄 짐, 가난, 죄 의식, 가정불화, 공산주의, 자유주의, 인본주의, 도적적 타락

1. 정죄에서 벗어나는 자유, 죄를 짓는 혼은 죽는다.

2. 율법에서 벗어나는 자유, 주님의 모든 일을 자유로, 자발적으로 한다.

3. 순종하는 자유, 빌2:12-13, 방종이 아니다.

4.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유(딤후4:7-8), KJB 성경, 신약 교회, 아이들 교육, 목사 양성

5. 하나님의 은혜의 왕좌에 들어가는 자유(요일5:14)

### 자유하게 하는 성령님의 내주 결과(18)

베일이 없다. 예수님의 형상을 가지고 영광에서 영광으로 날마다 변화된다.

구약의 모세는 율법을 받으려고 산으로 가야 했다. 돌 판을 깎아야 했다. 40일을 굶어야 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도우심으로 행위가 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을 가지고 나를 살펴보고 그렇게 변화된다.

구약의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했다. 달과 비슷하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스스로 보일 수 있다. 조그만 태양과 비슷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분의 아들을 보게 되면 성령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빛을 발하게 한다.

이런 일은 행위로, 율법으로, 규범으로 불가능하다.

구약 사역의 수단은 법이었다. 신약 사역의 수단은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의 영이다. ★★★

### 결론

속박에서 벗어났는가? 자유를 느끼는가?

방종으로 흐르지 않는가?

나 자신을 살피고 성도들을 살피고 교회를 살피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는가?